

# [논평] 교육학에서 평화의 의미: 월터스토프의 관점

임정연(한성대학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평화의 관점에서 교육학의 성격에 관한 논쟁과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월터스토프의 평화 개념이 교육학의 비평화적 요소를 해결하고 융합지식으로서 교육학의 위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교육학에 주는 의미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교육학의 비평화적인 문제가 '이론과 실제의 분리', '분과학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히고, III장에서는 월터스토프의 '평화'가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통합된 성격을 지닌다는 점, 교육학이 분과 학문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교육학이 어떠한 성격의 학문이며, 어떤 성격의 학문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숙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 또한 우리가 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색할 때, 교육학이 분과학문과 대등한 관계를 갖고 타학문으로부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자는 본 연구의 교육학적 가치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학의 성격 논쟁은 오코너(O'Connor, 1957;1973), 전기 허스트(Hirst, 1966;1973), 랑포드(Langford, 1968)의 논쟁이 대표적인 것이며 상당히 의미있는 논쟁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이 대부분 1960년대와 1970년 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속 논쟁이나 교육학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육과 교육이론에 관한 논의들이 간헐적이긴 하지만 정범모와 이규호의 논쟁, 김인회와 이홍우의 논쟁, 1980년대에는 '교육학의 패러다임 논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여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에 관한 후속 논의 혹은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고찰하는 것은 논문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이 분과학문과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주도적 가치인 교육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터스토프가 학문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로서 제시한 '평화'가 기존의 통념적 교육적 가치인 '합리성'이나 '웰빙'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치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교육적 가치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평화'가 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어떻게 교육학이 타학문에 종속되지 않고 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의가 평화의 관점에서 교육학의 성격 문제, 교육학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학 내에서도 진정한 융합과 평화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